종전 기대감, 예상 상회한 경제지표에 이틀째 지수 상승

미국시황/ESG 김윤정 _ yunjeong.kim@ls-sec.co.kr
RA 성현영 _ hyseong@ls-sec.co.kr

미-이란 입장차에도 성장주 기대, 견조한 경제지표가 지수 상승 지지

- 미 증시는 DOW +0.48%, S&P500 +0.72%, NASDAQ +1.16% 상승. 산업재, 기술주 강세
- 스페이스 X 의 IPO 신청서 제출, 메모리반도체에 대한 터보퀀트 우려가 과도하다는 글로벌 IB 의견 등 성장주 투자심리 개선
- 국제유가 하락 WTI -1.6%, Brent -2.7%. 달러인덱스 99.4, 금 +2.4%

글로벌 IB 는 희망적 헤드라인보다 확정적 메세지 전 관망 입장

- 트럼프대통령은 이란 측이 휴전을 요청했고, 호르무즈 해협 개방시 검토하겠다는 입장. 다만 이란 외무부 측은 부인하며 장중 유가 변동성↑
- 이란 내부의 입장차 뚜렷. 혁명수비대 측은 호르무즈 해협이 적대 세력에 열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. 다만,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에 적개심이 없으며, 대립 지속은 무의미하다는 내용의 대미 서한 발표로 종전의지 시사
- 한편, 트럼프대통령은 오후 9 시(한국기준 2 일 오전 10 시) 대국민 연설 예고

인플레 우려 드러났으나, 예상치 상회한 경제지표

- 3월 ADP 민간고용 +6.2만명 전월비 감소·컨센 상회. 교육·헬스케어, 건설업에 집중 양상 지속. 재화생산 +3만명, 서비스 +3.2만명으로 이례적 균형
- 2 월 소매판매 MoM +0.6% 상승세 전환·컨센 상회. 컨트롤그룹 핵심소매판매 0.2→0.5% 개선
- 3 월 ISM 제조업 PMI 52.7 전월·컨센 상회, 확장세 지속. 가격지수 +7.8p '22.6 월 이후 최고치, 고용지수 -0.1p 위축국면 지속. 3 월 S&P 글로벌 제조업 PMI 52.3 전월비 개선·컨센은 하회
- 무살렘 총재는 현재 금리레벨은 한동안 이중책무 위험 대응에 적절한 수준이라 평가. 다만, 근원·중장기 기대 인플레 2%목표 이탈 지속시 금리 인상 지지할 것을 시사
- 국채금리 상승 10Y 4.334%(+2.3bp), 2Y 3.809%(+1.0bp)

티커	종목명	수익률 (1D,%)	내용
INTC	인텔	+8.8%	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가 보유했던 아일랜드 '팹 34' 합작법인 지분 49%를 재매입하여, 해당 파운드리 공장 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회복하기로 결정. 지분 재매입 자금은 보유 현금과 약 $6.5B의 신규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 예정. 회사 측은 이번 거래가 향후 EPS 개선 및 '27년 이후 신용도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 설명
LLY	일라이릴리	+3.8%	경구용 비만치료제 '파운다요' FDA 승인 소식에 주가 강세. 1일 1회 섭취하는 먹는 치료제로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. 이번 달부터 자체 온라인 플랫폼 '릴리다이렉트'에서 판매 예정
NEM	뉴몬트	+5.1%	지정학적 리스크 지속과 인플레 우려로 국제 금 선물 가격 반등에 연동. 금가 상승에 따른 마진 확대 기대감과 그간의 과도한 하락에 매수세 보이며 강세
PM	필립모리스	-4.8%	FDA의 니코틴파우치 신속 심사(Fast-track) 지연 소식에 신제품 출시를 통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약화되며 주가 약세. 아동 및 비흡연자에 미칠 잠재적 우려가 심사 지연 이유. 궐련 판매 감소를 상쇄하려던 전사적 성장 전략에 규제 불확실성 리스크 부각됨
BA	보잉	+4.2%	미 국방부와 PAC-3미사일 탐색기 생산량을 3배 확대하는 7년 규모의 장기공급 계약 체결하며 주가 강세. 또한 웰스파고는 보잉의 생산 정상화에 따른 '28년 FCF의 가파른 턴어라운드와 밸류에이션 매력을 근거로, 투자의견 '비중확대' 및 목표주가 $250 제시하며 신규 커버리지 개시
PVH	PVH	+9.8%	4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 주가 강세. 관세에 따른 비용 압박에도 불구, 캘빈클라인과 타미힐피거 등 핵심 브랜드파워에 따른 견조한 수요, 전략적 리스크관리와 우호적인 환차익 등 영향